세계동물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대담내용 전문

2015년 10월 8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

<대담자>

임순례(임): 카라 대표
장윤재(장): 목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루피노(루): 작은형제회,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위원장
유성희(유):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임: 먼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표현을 쓰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무지개언약과 연관이 있나요? 맞는 건가요?

장: 요단강보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웃음)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면에서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임: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기독교에서 동물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사별한 반려동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갔는지 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 교회 안에는 여러 전통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생성되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적 패러다임을 로마 가톨릭이 메인 패러다임으로 정했습니다. 토미즘은 매우 인간이 성중심적인데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인간이 구원의 중심이고, 다른 생명들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는 관점이 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도 프란치스코의 세례를 받은 다른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토미즘을 공식적으로 계속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구원되고 안 되고는 누가 정하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프란치스코의 시작은 항상 창조입니다. 프란치스칸적 관점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가 된 것이라면, 창조주가 영(Spirit)이기 때문에 모두 영(spirit)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성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바위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를 넘어서는 체험인데, 여기 모인 분들도 동물들 안에 무엇인가를 만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동물의 영을 만난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no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 성직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창조물들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영성,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건물이 1968년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동물이 들어온 적이 처음입니다. (웃음) 신선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축복식에 참가하신 분들이 행복해보였습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감성이 풍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라면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라의 활동을 보면서 몇 가지 큰 변화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물을 상술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카라에는 여성 활동가들이 많이 보여서 좋았어요. 환영합니다.

장: 이 나라에서 동물의 권리나 복지가 해결되려면 종교가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계는 남자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YWCA에 와서 해서 너무 좋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멈추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듯이, YWCA가 움직이면 이 나라의 동물들에게 구원이 일어날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좀 더 과감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노아방주의 핵심은 동물도 함께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속죄를 하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에 의해 동물이 속죄양이 되는 것을 끝냈습니다. 이 점 또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기독교가 스스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혼중심주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협소한 관점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는 육체도 포함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이단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플라톤에 빠져 이원주의였습니다. 신은 영혼, 이성, 선/ 세상은 물질,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과 싸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혼과 육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성서의 구원으로 돌아간다면 동물을 구원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창조세계의 회복을 말하는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임: 성서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동물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루: 스캔들처럼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반려견을 잃고 슬퍼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신 게 기사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 장교수님의 교리는 사실 주류가 아니잖아요? (웃음) 종교계가 동물을 보는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못한데,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 세력을 얻고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인간 중심적 교리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논의가 필요하긴 해요. 21세기 교리들이 성서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천만이 넘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가족같이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이미 해외에서도 종교계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생태, 생명 목회자도 나오고 있어서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입니다.

임: 네, 곧 한국교회가 닥칠 문제인 것같네요.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께 청하는 게 변화를 위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아까 축복식 할 때 동물들을 유심히 봤는데, 신부님의 손길이 스칠 때 거부하지 않고 마치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이 축복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고, 영혼의 교감,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및 소감을 받아보겠습니다.

용인 유기견보호소장: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교수님 발표를 들으며 참 혁신적이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많이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세기 1장과 9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 중에 유기견보호소에 와서 축복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에는 목사님 입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사람한테 하지... 이런 좋은 일은 사람에게 하라”, “사람보기에 선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은 아니다.”는 소리를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본이 되셔야 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라.”는 말만 했는데, 장교수님 말씀을 듣고는 동물구원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교인이나 성직자분들께 잘 대응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존해야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아휴~~ 너무 감사합니다.

참석자1: 제가 2년 전에 6년 키운 개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도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정식입장에 반하는 용기에 감명 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살아있는 아이, 죽은 아이를 위한 축복 이외에 저 같이... (울음)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축복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엉망입니다. 목걸이도, 칩도 다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가져올 껄.... 카라가 유기견에 대한 활동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수사님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루: 끝난 다음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2: 수사님, <세계 위기동물을 위한 기도문>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을 ‘어머니하느님’이라고 하셨는지요? 저는 개신교인데 ‘하나님아버지’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루: 아빠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요(웃음). 저만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교 안에 하느님을 남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언어적 성찰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성신학의 흐름에서 하느님을 he나, him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비슷하게, 미사를 드릴 때 형제자매가 익숙한데, 자매형제 하면 귀가 놀라는 현상을 봅니다. 가톨릭은 성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아버지라고 할 때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왜 어머니라고 하지는 못하는지... 언어적 인지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엄마라는 표현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유: 사실 교회에서 어머니란 표현이 어려워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교회의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아버지를 생략하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YMCA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모두 다 했는데 아직 동물운동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Y 9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논의하면서, '생명과 평화'로 크게 할 일을 정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돌보는 일이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이 안 가는 곳은 다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활동을 보며 이런 부분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문제인식을 키워주시고,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 '하느님어머님' 얘기에 첨언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적 언어는 은유라는 점입니다. 직유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생물학적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최상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특히, 성경안에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이라는 구절이 있고, '내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라고 자신을 여성적 이미지로 은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어의 도그마에 묶이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통이지 않을까요.

임: 하느님어머니가 저도 어색했는데 듣다보니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더 큰 의미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다음질문?

참가사3: 얼마 전에 카라 동물보호교육강사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육식에 대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종교계의 육식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루: 사실 저는 종교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은 알수록 모르겠고, 쉽게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식입니다. 불교도 채식이 종교적 실천이지만, 다른 나라의 불교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처님도 공양을 받으실 때 발우에 들어온 것은 다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가톨릭도 금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실천, 구도를 열심히 하는 수도자의 삶을 봤을 때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1년의 반 이상을 하루에 빵 반 덩어리와 물로 단식(절식)하며, 풍족하게 먹는 것을 늘 경계했고, 소박한 식생활을 추천했다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보면, 육식과 채식은 윤리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채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동물생명을 해치는 일에 동의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팔려가는 양을 사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며 팔거나 잡아먹지 말고 집에서 잘 돌보고 키우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식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육식과 채식은 구도의 길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장: 성경에 근거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성경이 원흉이 된 것이, 창세기 1장 28절 '땅을 다스려라, 동물을 다스려라' 이런 구절 때문에 서양의 정복이 시작된 것인데, 바로 뒤에 있는

29절에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채식이었습니다. 성서적 해석으로는 원래 인간은 채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육식 허용은 노아방주 이후에 '피 째 먹지 말라'는 조건부 허용입니다. 이 뜻은 고통을 가하지 말고 고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동물학대를 하는 공장식 축산은 안 됩니다. 게다가 육식은 임시적 허용입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이 새로 완성하시는 구원의 세계는 이사야 65장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 '라고 되어 있어서 풀을 먹는 원래의 창조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성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채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4: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동물축복식이 있다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와 보니 많은 분들이 왜 반려동물에게 축복을 내릴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종교계에서는 축복이 어떤 의미인가? 보통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루: 기도문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세계 위기 동물을 위해서는 첫 창조 때의 축복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넣었고요, 한국의 위기동물을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덤으로 무엇을 더 준다는 의미보다 이미 축복을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해달라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장: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닭이 태어났으면 20여년 동안 생명을 주신 본성에 따라 생육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다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권리를 동물을 인간처럼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원래 갖고 태어난 본성대로 살게 하자는 말로 이해합니다. 신이 동물에게 주신 삶을 인간이 방해하고,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 맞습니다. 사실 기도문은 동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정신 좀 차리라고 쓴 것이지요. (웃음)

참가자4: 구원의 문제에 대해 제 맘대로 생각해 온 게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숙명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동물들은 원죄가 있는 것인가? 왜 동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동물은 모두 착하고 순수하다고 보았는데... 인간도 창조론과 달리 진화론으로 보자면 처음엔 인간이 아닌데 원죄가 성립되는가? 이렇게 제 맘대로 이해해도 될까요?(웃음)

장: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좀 폭넓은 의미입니다. 건강, 치유, 회복 등... 온전하지 못 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 잡는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간은 대속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대속 받을 원죄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인간의 폭력, 학정으로부터 구원받을, 본래 신에게 받은 본성에 따라 생명의 권리를 회복받을 대상, 하나님 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 프란치스코는 시기적으로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그분의 글이 좀 남아있습니다. 수도회 총장으로서 당시 관련된 여러 문제에 권고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인간은 있는 그대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 등 하느님께서 만든 다른 피조물들은 순종을 잘하고 있어서 인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봤을 때 모두 함께 구원으로 나가도록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 듯합니다.

임: 오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분께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일 5시라 직장인은 못 오신 분이 많으셨을 텐데, 내년에는 10월 4일 동물의 날에 맞춰서 꼭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박수)